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한번 읽지 못한 사람,
성경을 한장만 읽어도 잠이 오는 사람,
성경 읽을때 꿀보다 더 단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처음 사랑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교인 대상 성경 읽기 특별집회

8월 26~29일, 기간중 새벽·오전·저녁 세차례 집회

교회는 8월 26일(월)~29일(목) 4일간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암송 특별집회를 갖기로 했다.

기간 중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세 차례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 및 통독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또 저녁에는 성경 통독 및 암송에 관한 간증 및 설교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기간 중 새벽과 낮 시간을 통해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마가복음·요한복음·로마서·고린도전후서·히브리서·야고보서·유다서를 통독하게 된다.

강사는 성경 통독 집회를 실시하는 요한선교단의 대표인 박종면 목사이다. 박목사는 알콜 중독으로 기억 상실 등 폐인이 되었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5년 동안 성경 3천 절을 암송하며 성경 통독과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을 순회하며 성경 통독 및 암송 집회를 인도해 오고 있다.

이 집회는 원래 3박 4일을 집단 숙박하며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여 성경의 강한 역사 아래 성경 그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 암송 특별 비법을 간증 특강하는 특수 훈련 집회이다. 그러나 이번 우리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특수

훈련 성격이 아니라 부흥회식으로 집회 형태를 바꾸어(새벽 1시간, 낮 2시간, 밤 2시간) 시간상 신약 성경만 통독하며 성경 자체에서 진미를 느끼고 설교, 간증, 특강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 집회의 특징은 성경 자체에 재미를 붙이고 성경을 읽는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점, 성경속독법과 다른 것은 속독법은 소리를 내지 않고 빨리 읽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집회는 시간에 별 구애 없이 소리를 내어 읽고 암송하는 점이 다르다.

또 우리가 평소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하기 힘든 성경 암송의 비법을 간증하는 집회로, 어른 7만원, 학생 5만원의 회비를 내고 3박 4일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집회에는 회비가 없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 중에 많은 유익한 일들도 생겨 간증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정으로 참가한다면 이번 집회는 여러 모로 성도들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 성경 읽기 암송 체험 간증 사례 ▶

술, 담배에서 성경 암송으로

나는 고1때부터 술과 담배로 방탕하여 군대에서도 암기 사항을 한번도 외워보지 못했지만 훈련 후 두 달만에 야고보서가 1장에서 5장까지 모두 암송되어 나와 주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하나 남게 영광을 돌렸고, 그 뒤로 수개월만에 마태복음 1~28장 전권을 암송하게 되었다. 송명현 집사(미국 시카고 남서부교회)

교회설립43주년
기도원 부흥사경회

9월2일(월) 밤부터

충현기도원에서는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기념 부흥사경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교통편은 ① 충현교회당에서 기도원으로 출발(오전 9시~10시, 오후 6시~7시) ② 성남 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오전 10시 10분, 오후 7시 10

분) ③ 분당 이매촌한신아파트 전하리교회 앞에서 출발(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④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광주터미널에 오셔서 택시편, 이천 곤지암행 완행버스 타시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기도원 간판 있음) 도보로 약 10분 ⑤ 기도원에서 교회로 오는 차편(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

• 강사: 김 오 용 목사
(동일로교회 담임목사)
• 일시: 9월 2일(월) 밤~6일(금) 새벽까지
• 장소: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 9-1

수재민을 도읍시다

이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기습 폭우로 엄청난 재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명의 인명마저 순식간에 잃게 되어 피해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정부 당국은 최선을 다하여 피해 복구와 구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 모금기간: 1996년 8월 31일까지
- ▶ 접수처: 사무국(교육관 1층)
- ▶ 모금품목: 성금 및 생필품(식품 및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단, 의류품은 제외함.

1996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1학기에 이어 총 102명에게

교회는 96년도 2학기 하반기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발표하였다. 장학생은 102명에 7,210만원이다.

2학기 장학생은 1학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중에는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2학기 장학생에서 빠지게 됐다. (사랑의 장학금은 서초구청에서 의뢰한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 충현장학생

<대학생>
전이배 송선희 송혜란 박윤경 손지영 최윤정 한정숙 박미애 박경민 황은신 신혜영 송정목 김광석 박은영 조정혜
<고등학생>
최형원 유성렬 김정아 윤철중 조혜영 윤이향 고재영 최연주 김신념 안의정 강석천 정시은 배상희 정석환 구세진 박병규 유지성 김수정 이덕용 김한석 구혜경

<중학생>

정재욱 장성재 홍진방 임지용 차은경 장정은 최미희 장혜영 김선미 이진정 정혜리 조준기 허예스더 강미란 김현경

• 소석장학생

<대학생>

최정락 문혜원 양자영 이문자 전홍배 안명철 박재범 강영립 임나영 송경주 임성이 김혜영 최은정 오지현 장상원 김현경 이은선 김현아

• 신학원장학생

박노철 남상범 박인기 염현일 허정애 허 정 이준경 한승일

• 사랑의장학생

이현철 김영주 김진숙 조정준 임선영 이선명 민설하 최 진 박상현 김민정

• 위탁장학생

이성권 유성렬 이병주 이규원

아멘찬양대 반주자 임명

아멘찬양대 반주자로 봉사해오던 송영미 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교회는 김남욱 선생을 아멘찬양대 반주자로 임명했다. 김남욱 선생은 연세대, 뮌헨 국립음악대학, 스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하였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을 만난 의인의 기도

(시편 28:1-9)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며, 저자의 환경은 압살롬의 난을 피할 때입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 임금에게 하나님께 대해 원망할 마음이 생길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아들을 저주할 만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만한데 다윗 임금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 주신 것을 믿을 때에 마음이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을 위로합니다. 또 도탄 중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교훈까지 합니다.

1.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1)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 점잖게 찾아서 기도하는 때는 보통 때이고 정 어려우면 부르짖게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사람 살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이 질려집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가다가 짐승을 만나면 “사람 살려요”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편안할 때에 고함을 지르면 정신나간 사람이고, 어려울 때에 가만가만 말하면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울 때에는 손을 들고 부르짖을 수 있으나 편안할 때에는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은 튼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변함 없고, 하나님의 재산이 변함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희망이 없어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을 안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오래 기다리시면서 응답을 안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바로 못 구하면 바로 구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구했는데도 즉시 주시지 않는 때도 있는데, 이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쪽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성소입니다. 산기도도 좋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가든지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3)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1) 악인과 함께 취급하지 마옵소서

세상은 본분없이 그저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도매금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부 행한 대로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펴보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름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나지만 농부가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 놓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아니 행할 뿐만 아니라 남이 행하는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헐고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악한 자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하며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중 인격자입니다. 이런 악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별 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공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잘못도 용서 받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휼히 여기시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처리하십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몇 번이나 보고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매 맞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재미를 본 사람, 못된 짓을 하고도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높아지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나쁜 일에 재미를 본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2)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지은 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을 기다릴 줄 알고, 마음의 응답이 오면 괴로워도 감사부터 할 줄 알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켜 주옵소서’ 악한 자의 계획을 파괴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한 사람이 의인을 괴롭힌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의인이 악한 사람 앞에 당한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백 배나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공휼을 입은 사람과 공휼을 입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공휼을 입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2.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윗 임금은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도망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돌아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도망가는 자리에 있지만 ‘잠시 후에 내가 승리를 주마’ 약속이 왔습니다. 그러니 복은 아직 못 받았지만 너무나 좋아서 찬송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다윗 임금은 일찍부터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양치던 목동 다윗이 온 나라의 군대가 감당을 못하는 블레셋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골리앗의 힘이 다윗보다 몇 배라도 더 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골리앗이 천 번 이길 것인데 골리앗은 사람 하나이고, 다윗은 골리앗만 좀 못해도 하나님이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패 속에 숨으니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는 찬미를 부릅니다.

다윗 임금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사라, 그 방패 속에 숨으니 압살롬의 화살이 나를 쏠 수가 없고 손뭇 자가 없는 보호를 받으니 평안하고, 앞으로 이길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 지금은 도망가지만 머칠 있다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천 사람, 만 사람이 나를 환영나올 것이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 이것이 다윗 임금이 도망가면서 드린 기도요, 도망가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소원이 그대로 됩니다.

3. 백성을 위한 축복

다윗 임금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응답을 받으니까 백성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도망가고 반란군은 일어나니 죄없는 백성들이 공연히 밟혀서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 억울한 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도망가면서도 백성들이 상할까 보아 기도하는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악한 사람 되지 맙시다.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쓰려고 하는 악한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지은 바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는 자기 중심의 사람도 되지 맙시다. 복을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하고 잘못했으면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중 인격자 되지 맙시다.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도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을 기다릴 줄 알고, 마음의 응답이 오면 괴로워도 감사부터 할 줄 알면 준비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으면 교만하지 말고 내 백성 전체에게 같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금번 8월 말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성
경 읽기 암송 특
별집회와 후반기
성경연구원 성경
공부를 허락하셔
서 성경을 공부할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
사를 드린다. 8월
의 태양의 뜨거운
열기처럼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 성경공
부의 뜨거운 열기가 충만하기를 기도한
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
가해 신앙의 확신을 얻고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성경공부와 신앙성장에 관한 말
씀을 드릴까 한다.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17
절에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첫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함께
나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교양이나
어떤 철학적 지혜나 높은 도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했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
게 제시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
도를 통하여 구원이 배워질 것을 예언
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
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성경은 한 마디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증거하고 있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알
려주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님은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
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라"고 했다. 성경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
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또 성경은 이와같이 단순히 영생의
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와 함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감화 감
동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게 해 준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교
회에 나오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1년 다니다
가 그만두고 2년, 3년 다니다가 그만두
고 어떤 사람은 3개월, 5개월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님을 만나고 거들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렇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로, 성경을 배울 때 이단에 속지
않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
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 성경연구원 개강에 즈음하여 *

성경을 읽고 배웁시다

조 윤 재
(목사, 성경연구원, 제9교구 지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
라"고 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이단사설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울
서신에 보면 초대교회에 유대인 신자들
이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 유대 율법주
의에 빠졌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는 성경을 잘 배우고 확신에 거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노시
즘과 같은 지식주의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몬타니즘과 같은 신비주의에 빠
졌다. 이것은 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취
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오늘
날도 마찬가지이다.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천부교, 여호와의 증인, 물론
교, 안식교, 또 최근의 다미선교회 등 모
두가 성경을 다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취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전
체적으로 모르면 이런 이단에 빠지기 쉽
다. 이단사설에 빠지는 것은 신앙이 어
린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 권
사, 장로, 목사들도 빠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온전
케 되어 바른 교사, 실력있는 교사나 구
역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을 잘 알지 못하면 바로 가르칠 수가 없
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한다. 요즈음 아
이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선생님이 성경
대로 가르치는지 안가르치는지 너무나
잘 알 뿐 아니라 질문을 해도 대답하기
도 힘든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반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알아야
능력있게 가르칠 수 있다.

넷째로,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대로 바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봉사
를 할 때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교
회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봉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일을 할 때 자기
의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교회일을 할
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운영을 자기 회사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뜻
대로 봉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
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
석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어떻
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자존
심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을 본다. '내가 이래도 과장이고 사장
인데, 내가 이래도 권사고 장로인데 어
떻게 그런 자리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
는가?' 체면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이들

이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알
기 위해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용기를 가
져야 한다. 모르면서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기보다는 겸손히 배우는 용기가
더 위대하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겸허한 자세를
취할 때 배울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나
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스승이 된
것은 바로 겸손했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 칼빈 선생은 교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
다 어렵다고 말했다. 인간은 자기가 낮
아지는 것만큼 올라갈 수 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문을 꼭 닫아
놓으면 새 지식이나 새 사상이 들어갈
수 없다. 자기의 적은 지식이나 편견에
꼭 차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에게는 배움이 불가능하다. 탈무드에 보
면 이런 말이 나온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지만 어른들에게 가르친
다는 것은 마치 무엇이 가득 그려지고
쓰여진 그 위에 여백을 찾아서 그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잘 배우고 빨리 배우지만 어른들은 지우
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셋째로, 열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가 바쁘다는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거부하
고 회피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핑계
이다. 배우고자 하는 관심과 열심만 있

으면 얼마든지 배
울 수 있다. 돈버는
것만큼 배움에 우
선권을 두고 열심
을 내면 왜 배우지
못하겠는가? 결국
무슨 일이든지 열
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나
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하는 사람
이 있지만 그러나
배움에 있어서 부단히 훈련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한번에 배워지는 것
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인
격으로 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훈련은 천재를 낳고 공부는 명인을 만
든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학자,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인물이 저절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나는 노력과 훈련
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나 하나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요
한걸음 더 나아가 남을 위한 것이 된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점
에서 가르치는 것도 결국 배움의 좋은
한 방법이 된다. 인간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한다. 배움을 통해
서만 이 인간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배우는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다. 왜
냐하면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이
겠는가?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다. 처음
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
도 없다. 태어나서 배우므로 알게 되는
것이다. 구슬은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 현대인의 정신적
범죄의 하나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라고 어떤이가 말했다. 배우는 자가 결
국 승리하게 된다.

.....

찬양대의 <충현찬양모음 I> 남성중창단 CD 제작 보급

우리교회 찬양대와 남성중창단이
연주, 녹음한 찬양 카세트 테이프(사
진 좌측)와 CD(사진 우측)가 나와 현
재 보급 중이다.

찬양 카세트 테이프에는 각 찬양
대가 불러 녹음한 찬송가 18곡이 수
록되어 있으며 <충현찬양모음 I>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CD는 그동안 남성중창단이 준비
하여 녹음한 성가곡 13곡이
들어 있다

현재 교회의 테이프보
급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충현찬양모음 I>은 1개
에 1,000원 CD는 1개에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게 좋은 찬양대이
프나 음반이 별로 없는 실

정에서 이번에 나온 테이프와 CD는
여러모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울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성도
들이 늘 들어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
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특히 <충현찬양모음 I>은 상(喪)
을 당한 집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찬
양곡이 많이 들어 있어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청년1부 연천 수해지역 봉사를 다녀와서 ▶

오히려 갔다온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져서 왔습니다

신 동 진
(청년1부 회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

이 글을 쓰기 앞서 이 일에 모든 것
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해외 및 낙
도, 오지 선교에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
하여 현장을 직접 보고 옴으로써 앞으
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
니다.

6월의 '함께하는 청년'과 7월의 청
년부 파송 수련회에 이어 8월 첫주부터
실시된 국내 낙도·오지 선교 1, 2차 그
리고 일본 선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터
키 단기 선교를 마지막으로 둔 시점에
서 3차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여 동안 직장일을 겸하며 시간
을 쪼개어 준비하면서 떠나기 하루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격
정,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너무도 많았
고 이런 농촌 사역은 처음인지라 청년
들의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과
떨림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가기로 정했던 낙도 사역이 변경되어서
전남 영암이란 오지로 바뀌었고 답사도
갔다 왔지만 다시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수해를 당해 많은 어려움
에 처한 경기도 연천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역지 결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
었습니다.

게다가 두 팀이 합쳐진 인원치고는
모인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 인원이 피
곤치 아니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
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팀원들이 서로서로 잘 도
와가며 마치는 날까지 협력할 수 있을
까 등 이런 저런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
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돌아해보면 모든 것
이 우리 안에 선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
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형편과
준비된 만큼에 적당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
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
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말씀
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을 때, 가
장 걱정했던 인원문제가 출발 전날까지
민심을 잃지 않았던 우리에게 함께할
형제 자매를 필요한 만큼 동참하게 허
락하셨고 차량문제도 적절하게 해결하
셔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였
습니다.

지금까지 무더웠던 날씨도 마치는
날까지 알맞게 허락하셔서 일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
게 넉넉한 힘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주

셔서 일을 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
에서 스스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말씀
에서처럼 모이기를 폐하려는 세상의 세
력에서 떠나 사랑을 나누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
다.

첫날부터 시작된 모래 나르기, 교회
주변 제초 및 배수로 작업, 수해당한 가
정 돕기, 인삼밭 매기, 콩밭 매기, 고추
따기, 수해로 망가진 양계장 치우기와
우리의 매끼니를 준비한 자매의 수고
등 일을 통한 사역은 평소에 하던 일들
은 아니었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팀원들의 모습에서 힘든 표정이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즐
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
습니다. 게다가 설거지를 자진해서 하
고 자기 일이 끝나면 쉬지 않고 다른 조
의 일을 스스로 돕는 등 자신의 일 뿐
아니라 서로의 일들을 돕는 모습을 통
해 우리 안에 먼저 협력하는 모습을 가



졌습니다.

아침을 시작함에 있어 말씀을 묵상
하는 시간을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맡
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매일 일을 마치고 하루
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수
고한 형제 자매 서로가 위로하는 시
간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정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하나 일
이나 날씨에 지쳐 몸이 약해지지 않고
마치는 날까지 건강으로 돌아와 주셨습
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울에서 온 우리
를 그리 반갑지만은 않게 맞으셨던 많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기 수강생 모집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
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건강한 가정
을 꾸미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약혼 중이거나 장차 결
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1. 교육기간

9월 1일(주일)~10월 27일(주일)
매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2개월 과정)

2. 교육장소

교육관 208, 209호

3. 교육내용

① 성경적 결혼관 ② 겸손한 결혼
준비 ③ 부부의 성격 테스트 ④ 가정
법률 상식 ⑤ 가정 의학 상식 ⑥ 부
부간의 대화 ⑦ 배우자 가족과의 관
계 ⑧ 건강한 부부생활

은 분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
는 맘을 보시고는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서로를 섬기는 모습
을 갖게 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한 하나
님 안의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돕기 위
해 온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화
평을 갖게 하심으로 미처 생각지 못했
던 우리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갔다온 사람들은 몸과 마음

직원모집

1. 모집부문

- 가. 영상(남녀 불문, 유경험자 25세 전후) ○ 명
- 나. 음향(남, 유경험자 30세 미만) ○ 명
- 다. 정리 및 사무직(여성고졸 22세 미만) ○ 명
- 라. 경비직(50세 전후) ○ 명

2. 자격

세례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한 성
도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포함) 1통
-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다.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통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 402)

또 전하여 지금 처한 아픔을 나누고 그
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앞으로의 생
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
역의 복음화와 우리가 간 미산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함이 무엇보다 필
요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
일하게 당하지 않았기에 생각이나 마음
이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도
를 만나 길거리에서 죽어간 사람을 구
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향
한 마음을 어떻게 품고 계시지를 생각
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
해 지역의 낙도, 오지에서는 우리가 생
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
님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영적인 피붙이인 자들입니다. 나의 형
제요 자매라는 마음으로 한번쯤 기억하
고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스스로가 그
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기회가 되지 않
을까요.

'형제 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란 말씀이 있습니다. 동
거함이란 그들과 동일한 처지에 놓이
는, 그래서 같은 경험과 마음을 갖는 것
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동거할
때 우리 안에는 절로 말씀 속의 아름다
움이 쌓일 것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짧은 기간
이지만 경기도 연천의 수해 지역으로
다녀온 3차 사역을 친히 계획하시고 준
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무사히 마치고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참
하신 여러 충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
합니다.

(사진 / 농어촌전도에서 수해지구
봉사활동으로 바꾸어 실시한 청년1부
봉사팀들. 전도할 때 이상의 의미를 경
험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지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져서 왔습
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자녀된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해지역의 피해상황과 교
회상황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TV나
언론매체를 통해 본 것과는 느낌이 달
랐습니다. 모두 모래에 잠겨 쓸모없게
된 벼, 다 망가진 인삼밭, 양계장, 방 안
까지 쌓인 진흙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
마나 상한 마음과 낙망함 가운데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들의 일을 도왔다
고 하지만 3일 동안의 일은 그들에게
별 큰 차이를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맘에 위로를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
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직접 보고
온 우리들이 얼마만큼 그들을 기억하며